

370장 -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019년 11월 11일(월)

이른아침예배

인도 : 고흥석 목사

예배를 여는말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370장	다같이
기도	박병근 집사	
성경봉독	호세아 10장 1~2, 12~13절	인도자
찬양	새벽찬양대	
설교	『묵은 땅을 기경하라』	고형석 목사
기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같이
찬송	314장	다같이
축도	설교자	

📖 오늘의 말씀 < 호세아 10장 1~2, 12~13절 >

1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이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2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12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13 너희는 악을 밟 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 날의 한 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 하시네
-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14장 -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2. 이전엔 세상 낙 기뻐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11월 12일(화) 기도 담당 : 이철용 집사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9년 11월 11일(월)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모셔야 할 자리에 다른 무엇을 품었던 저희들의 패역한 마음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사오니 용서해주시고,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만을 품고 사랑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주의 권능의 팔로 새문안교회를 붙들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상학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새문안의 모든 가정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삼아 성령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11월 14일에 있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성실히 준비한 내용들이 잘 기억나게 하시며 평안함 속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공휼과 자비의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죽음과 어둠의 문화가 복음의 빛으로 쫓겨가게 하시고 생명으로 가득한 이 땅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화해와 평화로 나가게 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삶의 아픔을 호소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이들의 신음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